

‘일터불교’ 일구는 직장불자회 소모임

도봉경찰서 ‘좋은 사람들’ 구성... ‘Give-5 운동’ 발판
 대덕연구단지 경전연구회 결성... 연구분야와 연계활동
 철도청불단협 불자회 후원회 ‘수자타’ 각종 재정 지원

자원봉사·후원회 등... 이미지 제고·포교 효과도



그림/김영민

직장·직능불자회 내 소모임들이 일터불교 활성화를 일구고 있다. 이들 소모임은 기본적인 신행 활동 동참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활동까지 벌이고 있어 직장불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소모임은 자원봉사에 서부터 불교 경전 연구, 가족 모임, 불자회 발전 후원회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분야가 폭 넓어, 직장 내 불자회 이미지 제고와 포교 효과도 얻고 있다. 또 행사 때마다 공양물과 식사 준비 등 곳곳까지도 맡는 등 불자회의 원만한 신행활동을 돕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 불교회는 지난 2000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게 정신, 신체, 물질, 시간 등을 5% 나누자는 취지로 ‘좋은 사람들’이란 봉사 모임을 만들었다. 매달 점

심시간을 쪼개 인근 복지시설에서 활동해온 ‘좋은 사람들’은 경찰서 내 ‘Give-5 운동’을 추진해 한 개기까지 제공했다. 지금은 종교와 상관없이 50여 경찰이 회원이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또 장원 두산중공업 법우회는 지난해 자원봉사 모임 ‘함께 가는 길’을 자체적으로 결성, 매달 경남 고성군 아동복지시설인 보리수동산을 찾고 있다. 경전 연구 소모임이 구성된 불자회도 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는 올해부터 경전연구회를 결성했다. 경전연구회는 1천여 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박사

급 연구원인 점을 감안해 구성된 것으로, 회원들의 연구 분야와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가족모임이 활성화된 불자회는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와 월성원자력본부 반야회, 울진원자력본부 문수회 등이 있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가족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는 지난 2000년 결성 이후 매월 한차례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법우회와 함께 정기법회를 열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 후원, 철도안전운행 캠페인, 환경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는 올 2월에 불자회 후원회인 ‘수자타’를 조직했다. ‘수자타’는 노숙자 돕기, ‘철마는 자비를 심고’ 행사와 철도대학 불교학생회 육성 등 기간 활동이 벌어온 행사들의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구성된 소모임이다. 서울 도봉경찰서 불교회 봉사 모임 ‘좋은 사람들’ 고광선 회장은 “소모임 활동은 기존 회원들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 확보에도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직장불자회에서 소모임 결성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직장직능단체 의식집전 교육

조계종 포교원, 6~8월 6개 권역별로

직장·직능불자회 의식집전교육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오는 6월부터 두 달간 서울·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 6개 권역별로 ‘제3회 직장·직능불교단체 집전 의식 교육’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진행돼온 수도권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 지역 직장불자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전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바쁜 직장인인 점을 감안, 동일한

교육 과정을 이틀간에 걸쳐 두 번씩 진행된다. 또 한국불교대학생 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등 해당 지역 단체장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신행단체 간 교류활성화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포교원은 직장·직능 불자회 법회 활성화와 안정적인 법회 진행, 법회의식의 통일화 등을 위해 불교의식에 대한 이해와 목탁 집

전, 예불·정근·각종 법회 집전방법 등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교육한다. 강사진은 포교원 신도국장 지일스님, 총무원 총무국장 주경스님 등 각 지역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이 맡는다. (02)720-7060 집전교육은 6월 10일·13일 대전·충청권 교육은 시작으로, 8월 27일 서울·경기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표 참조) 김철우 기자

집전교육 일정

지역	일 자	장 소
대전/충청권	6월 10일, 13일	대전 백제불교회관
광주/전남권	6월 12일, 13일	향원사 광주불교대학
전주/전북권	6월 24일, 25일	금산사 전북불교회관
대구/경북권	7월 2일, 4일	대구 동화사
부산/경남권	7월 10일, 11일	범사사 금정불교대학
서울/경기권	8월 26일, 27일	서울 조계사

단체장



마곡사 등 3寺 성지순례
 조남희 충북 옥천경찰서 법우회장은 25일 충남 마곡사, 수덕사, 장곡사로 성지순례 법회를 다녀왔다.



정방사 등지서 환경법회
 박우락 철도청 서울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6월 2일 충북 제천시 금수산 정방사와 청풍문화재단지에서 ‘환경법회’를 봉행한다.



법주사서 합동순례법회
 김진평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은 6월 1일 충북 속리산 법주사로 정기 합동 성지순례법회를 떠난다.



통도·운문·표충사 성지순례
 이선희 한국세무사불자회장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양산 통도사, 청도 운문사, 표충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우리불자회는요

경북도청 불자회

우리 경상북도에는 전국 문화재의 20%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문화재는 8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경주의 석굴암과 남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대로가 불국정토인 노천 박물관인 셈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불교문화재를 찾아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봉행하고 있는 우리 불자회 법회는 항상 즐거움과 함께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불자회(회장 김영재 경제총상실장)는 지난 96년 1월 31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는 뜻을 가진 불자 150명이 모여 창립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도내의 사찰을 찾아서 법회를 가지면서 큰 스님의 법문과 함께 철야정진으로 신심을 북돋워 나가고 있습니다.

방שמ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면서 ‘자비방שמ’의 참뜻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방שמ법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참으로 장엄하고도 뜻 깊은 자기 점잖은 시간입니다. 금년 봄에는 경상북도와 시·군 공무원불자 500여명이 영천 은사에서 모두 모여 새해 설계를 하는 뜻 깊은 신년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또 백흥암 참배, 거조암의 500나한을 친견하면서 올 한해의 소망도 빌어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다소 행동을 제약하거든요. 또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처음 배운 법심이 흐려지곤 했지만, 회원들은 모두가 이럴 때마다 더 큰 마음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법회를 가지면서 항상 우리 불자회원들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불교문화재 노천박물관... 그 의미 되새겨

큰스님 모시고 경전공부 신심 다질 계획



◇올 3월 문경 대승사 일대 경전법에서 열린 방שמ대법회. 경북도청 불자회원들이 산천어 10만 마리를 풀어주며 ‘자비방שמ’의 참뜻을 새기고 있다.

지금까지 도청 불자회는 불국사의 회랑을 돌면서 33계단을 오르 내리는 달밤의 제등행렬을 벌여왔습니다. 신라인의 신심 있는 모습을 재현해내는데 충분한 행사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가람인 안동의 봉정사, 영주의 무량수전에 서의 법회는 우리 불자회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문화재로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종립선원인 문경 봉암사 회양선원에서의 참선정진도 우리나라 선불교의 맥을 느껴보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번이요? 매년 3월에는 봉화 청량사와 문경 대승사의 맑은 물에서 산천어(10만 마리)를 풀어주는

좀더 불교를 알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성지를 순례하면서 신심을 더욱 다지고, 수행 정진할 계획입니다. 문운사 승가대학이나 대구시내 불교대학을 찾아서 덕 높은 스님을 모시고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경북도청 불자회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제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300만 도민과 함께 호흡해 나갈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 ■편행법 총무부장

은해사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가사불사

삼보에 귀의하옵고, 신도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千年名刹 팔공산 은해사에서 불기2547년 개산 제1194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불사중에 으뜸공덕인 가사 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사는 스님들의 法衣로서 청정한 계율을 상징하며, 예를 올리고 수행정진과 중생교화시 수하는 법복입니다. 큰 복을 짓는 옷이라 하여 복전의(福田衣)라 하였으며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대웅전을 짓는 것과 같이 큰 공덕이 됩니다. 가사를 지어 스님들께 공양함은 공양 중에 최상의 공덕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스님 또는 지명하는 스님에게 직접 드릴 수 있습니다. 가사 1천벌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중 100벌은 북한스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모처럼 가사불사의 큰 복짓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동참 봉헌하시어, 승가에 대한 존경과 깨달음을 향한 정진으로 지혜와 복덕을 함께 쌓는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사안내
 입 재: 3월 10일(음 2월 8일)
 봉 헌: 10월 4일(음 9월 9일 개산재일)
 접 수: 종무소 (054)335-3318~9
 팩스 (054)335-0293
 원주실 (054)335-5220

동참안내
 일반동참: 1구좌 5만원
 대 가 사: 1벌 30만원

온라인: 농 협 723084-51-013851 (예금주 은해사)
 우 체 국 700260-01-000897
 국민은행 638101-04-002325
 ※송금시에는 전화나 팩스로 종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